



남성고등학교 월간 대학입시정보

가솔엔 비전 있을
행동엔 통찰 있을
새로운 세상엔 사랑을

(063)844-3813(교무실)
(063)859-9186(진학실)
(063)858-3908(Fax)

제2017-4월호

2017년 4월 14일(금)

솔밭안 기자단

조 단(10) 김사윤(7) 한정익(10) 배성훈(8) 김현중(7) 정민호(10) 권준환(3) 김민규(3) 문정준(2) 정상용(6) 김재영(9) 최준혁(10)
김민준(5) 김 현(9) 이정민(9) 김형민(2) 박준하(7) 양 건(7) 김규원(3) 임규진(1) 문서빈(6) 신동희(10) 배운혁(3) 남현익(8) 송건우(6)

고등학교 중간고사 대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중간고사, 개념정리-암기-문제풀이 3단계로 준비하라

C.O.N.T.E.N.T.S

입시 정보 지면 안내

- **고등학교 중간고사 대비법** / 1-3면
- **공부 절약형-나만의 학습방법** / 3-4면
- **10대 자녀와 다들없이 대화하는 방법** / 4-5면
- **2017 수능 캘린더, 학습 & 진로 NEWS** / 5-6면
- **고3을 위한 내신 성적 관리 가이드** / 7-9면
- **고3을 위한 논술 대비 가이드** / 9-10면
- **고3을 위한 비교과 활용 가이드** / 10-12면
- **대입 준비를 위한 R&E대회 스펙 관리법** / 12-13면
-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생의 활동에 주목하라!** / 13-19면
- **학교장 추천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어요** / 19-20면

※ 본 자료는 언론 및 기타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제작한 것으로 반드시 출처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학교홈페이지 입시정보란에 E-mail 및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자료집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새 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벌써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고등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내신 시험을 보게 된 고1 학생들은 물론, 마지막 1학기 중간고사를 내신 성적 '역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고3 수험생들도 시험이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중간고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은 3주 동안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중간고사를 대비하기에는 시간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지금부터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개념을 완벽히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을 쌓으면 된다.

단 3주. 남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중간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개념 정리, A4 용지 한 장에 '쑥'

중간고사 3주 전인 지금은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개념을 완벽하게 다져야 하는 시기다.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의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 이후 중간고사가 가까워질수록 탐구과목 등 암기해야 할 것이 많은 과목들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요 과목 개념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 '달달' 외우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방대한 시험범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 A4 용지 한 장에 한 과목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시험 범위를 한 장에 담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골라 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통학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다.

전체 시험 범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직접 판단하고,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을지 결정해 정리해야 한다. 이때, 핵심 내용을 줄글로 나열하기 보다는 '마인드맵'과 같은 형태로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문학 과목을 정리할 때는 가지 하나에 하나의 문학 작품을 적은 뒤, 해당 문학 작품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제나 시어, 의미 등을 정리해보는 식이다.

□암기는 '학습목표'에 맞게

개념 정리와는 별도로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 적힌 내용을 단순히 읽고 넘어가서는 응용되어 출제되는 문제에서 좌절할 가능성이 크다.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모든 교과서의 각 단원 첫 장에 있는 '학습 목표'에 주목해보자. 학습 목표는 해당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나타낸다. 교과서를 공부하다 보면 본문에만 집중해 학습 목표를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 학습 목표는 곧 교사들의 시험 출제 포인트가 된다.

예를 들어 국어 교과 학습 목표에 '문학 작품의 외재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해당 단원의 문학작품에서 외재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를 찾아보며 공부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시험 범위에 속한 단원들을 학습 목표 위주로 살펴보면서 출제될 문제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

□'수업시간에 풀어본 문제'에 답이 있다

개념 정리와 암기가 중요한 과목도 있는가 하면 문제 풀이를 통해 공부해야 하는 과목도 있다. 수학이 대표적인 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막무가내로 많이 풀기보다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풀어본 문제에 더욱 집중해보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적으며 풀어주는 문제는 곧 해당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담긴 문제일 확률이 크다. 해당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며 문제의 유형과 해당 문제에 담긴 개념을 빠짐없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의 경우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되짚어가며 자신이 어떤 개념에서 취약한지를 찾아내야 한다. 틀린 문제에 어떤 개념이 반영됐는지,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확실히 파악한 뒤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면 교과

서나 개념서 등을 활용해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동아 최송이 기자

고1부터 고3까지 학생부 항목별 공략 방법



『고교 학년별 과목별 내신 만점 전략』

- 고1, 문제패턴·출제방식부터 익히고
- 고2, 수학 문제풀이 응용능력 키워야
- 고3, 수능특강 등 EBS 교재 활용 필수

4월이면 새 학기 첫 중간고사가 시작된다. 고등학교 1학년은 새로운 환경과 높아진 학습 난이도 때문에 첫 시험이 부담될 수 있다. 또 최근 대학 입시는 수능보다는 내신, 학교생활기록부가 훨씬 비중이 크다. 학생부가 탄탄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할 확률이 높다.

중간고사 대비는 시험을 얼마나 남겨두고 해야 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험범위와 일정이 발표되면 시험일로부터 최소한 3주 전부터 본격적인 시험대비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공부혁명대 송재열 대장은 "시간 투자만으로 좋은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공부방법을 찾아 자신에게 꼭 맞게 준비를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학년별, 주요 과목별 중간고사 대비 전략을 살펴봤다.

◇학년별 학습 Tip

고1 : 입학 후 치러지는 첫 내신시험인 만큼 잘 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좋은 기회다. 우선 기출문제를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중학교와는 다른 시험 방식이 분명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 패턴과 출제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먼저 풀어보고, 못 풀면 어디가 어려운지를 찾아내 공부하면서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공부를 마친 후에 다시 풀어보기를 권한다. 지식이 늘어 더 잘 보게 될 수 있는데, 결국 공부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니 큰 도움이 된다. 영어 같은 경우는 교과에 들어와서 중학교 때처럼 그냥 외운다고 처리할 수 없는 범위를 다루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암기 보다는 내용을 먼저 익히고 그 내용과 연결 지어 외우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2 : 문과와 이과로 구분이 되어 처음 보는 시험으로 1학년 때보다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특히 이과라면 수학과 과학이 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패턴과 다른 흐름을 갖는 이과과목에 좀 더 공부하는 해야 한다. 수학 문제도 반복적으로 복습해서 풀어보고, 과학도 개념만이 아니라 문제 풀이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 과학은 대체로 교과서에서 개념이 출제된다 할지라도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하는가가 성패를 가를 수 있다. 문제 풀이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늘지 않는다. 개념서 이상으로 유형서를 통해서 문제에 적용시키는 응용능력을 키워보자.

고3 : 3학년은 수능특강 등의 EBS 교재가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부교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하면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꼼꼼한 공부가 필수다. 수능이 큰 범위에서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 후 미시적인 것을 외운다면 내신은 좀더 자세한 작은 내용들이 중심이 될 수 있으므로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개념들도 다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능특강 등을 보면 주요개념이 적혀 있는 난 옆에 개념체크 같은 것이 작게 적혀 있다. 개념들을 간단히 체크하고 쉽게 암기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개념들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목별 학습 Tip

국어 : 중학교 과정과 달리 고등학교 국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은 과목이다. 교과서에 실리는 글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문학작품을 비롯한 비문학작품에 사용되는 어휘 수준도 한 차원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어 같은 경우, 무엇보다 선생님의 수업에 따라 출제 방식이나 풀이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수업에서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정의, 주제, 해설 등을 빠짐없이 필기하는 것부터 공부가 시작된다. 같은 학년에 국어 교과 담당 선생님이 만약 한 분 이상이라면 다른 반과 필기를 한번 공유해보기 바란다.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 반에서 함께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던 개념들이 출제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그 필기를 다시 노트에 옮겨 적거나 스스로 기억해서 다시 써보며 수업의 내용을 기억해보기를 추천한다. 그 과정에서 수업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면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수학 :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 중 하나가 바로 수학이다. 국어, 영어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수학은 특히나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고득점을 올리기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다.

수학은 수업을 집중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숙련도도 평가의 대상이다. 따라서 문제를 정확히 주어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이 필수다. 단,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좋지만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다시 풀어보는 복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러 문제를 접해도 잘 풀 수 있지만, 시험 전까지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다. 또한 내신문제는 수업시간에 쓰는 교재 안에서 출제되거나 혹은 일정한 출제 패턴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사 유형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려는 연습이 훨씬 유의미하다. 너무 많은 문제를 기계적으로 푸는 것보다 효율적 시간활용을 통해 현명하게 유형 문제 정복을 하는 것이 내신을 위한 길이다.

영어 : 영어는 교과서를 크게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교과서나 수업 시간에 활용된 부교재 안에서 출제가 이루어진다. 교재를 전부 외우라고 하기도 하는데, 공부할 과목이 많은 상태에서 모두 암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쉽지 않다. 차라리 그 교재를 복사해 스스로 단어나 문법사항 혹은 문장 등을 빈칸으로 만들어가며 자신만의 문제 출제를 해보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풀어보고 고치고를 2-3번씩 하면서 내용과 함께 중요한 문법과 단어, 문장 등을 익혀보자. 직접 문제를 출제하는 노력은 수업 중 강조된 개념들을 기억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송재열 공부혁명대 대장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을 앞둔 3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데 되도록 단위수가 높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은 암기과목보다 우선해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미리 미리 과목 공부를 위해 주어진 미션들을 마쳐두면 그 다음 암기 과목은 생각보다 여유 있고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남형 기자 (출처 : 대전일보사)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른 공부법, 그리고 공부가 잘되는 환경과 방법!!!

"나는 어떻게, 어디서 공부를 해야 집중력이 높아질까???"



나의 공부 혈액형은 무엇일까?

공부 A형	공부 O형	공부 B형	공부 AB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스스로 계속 고민하는 편이다. 시간제한을 받으면 오히려 더 집중한다. 해당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천하는 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을 익히는 편이다.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편이다. 어려운 과목은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판단하여 학습하는 편이다. 풀어하는 과목 위주의 학습을 선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생각한다.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야 몰입도가 높아진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Actively act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계획적인 단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

원소 주면 정리를 깔끔히 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공부 A형은 이러한 자신의 계획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혼자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며 공부하다 의문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는 편입니다.

학습 방법 - 요점정리 노트

공부 A형은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진도를 늦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개념을 반복적으로 공부하기 보다는 문제부터 풀어 보면서 내용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교과서와 참고서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요점정리 노트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이 노트에 직접 요약해가며 정리하는 것이 암기력을 높여 주고 학습 기쁨을 만끽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계획한 학습 진도를 맞춰 나가기에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 같은 경우 시간 순서의 흐름에 따라 자기만의 표를 만드는 방법, 영어과목에서는 모르는 단어를 따로 정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A형> A형은 약간은 소극적인 공부태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는 혈액형입니다! A형에게 추천하는 학습방법은 ‘요점정리 노트’ 또는 ‘오답노트’ 정리하기!!!

나의 공부 혈액형은 무엇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스스로 계속 고민하는 편이다. • 시끄러운 장소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공부하는 것을 선호한다. • 매일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천하는 편이다. <p>공부 A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을 익히는 편이다. •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편이다. • 어려운 과목은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p>공부 O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 •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판단하여 학습하는 편이다. • 좋아하는 과목 위주의 학습을 선호한다. <p>공부 B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당연치 않아 한다고 생각한다. •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어 몰입도가 높아진다. •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다. <p>공부 AB형</p>
---	--	---	---

Practice over and over
반복해서 연습하라

외향적인 당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
왕왕하고 경광한 학생들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공부 에너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 혼자 공부 못 하더라도 생각과 공부하는 과정을 일 밖으로 소리 내면서 대화하듯 공부하는 것을 즐기며 목표를 정해놓고 경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다그친 행동력을 발휘하는 편입니다.

학습 방법 - 복습
공부 O형은 자문화 한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는 공부방을 떠나 나가 몸을 적당히 움직이면서 공부 할 때 더 높은 집중력이 발휘되는 편입니다. 다만 대강 공부하고도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 중간 중간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습보다는 복습위주의 학습을 추천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각 영역별 과목의 전체 맥락을 파악한 다음 문제 풀이를 충분히 복습해 나가는 것이 학습에 대한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가지씩 주제나 과목을 정해놓고 20~30분 동안 공부하는 것이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어 효과적으로 복습할 수 있습니다.

<O형> O형은 혼자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땐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쿨한 성격의 친구들인데요! A형과는 반대로 아주 외향적인 성격의 O형에게 맞는 공부법은 ‘복습’입니다! 복습을 통해서 취약한 부분을 채우고 성취감도 느끼고!!!

나의 공부 혈액형은 무엇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스스로 계속 고민하는 편이다. • 시끄러운 장소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공부하는 것을 선호한다. • 매일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천하는 편이다. <p>공부 A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을 익히는 편이다. •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편이다. • 어려운 과목은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p>공부 O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 •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판단하여 학습하는 편이다. • 좋아하는 과목 위주의 학습을 선호한다. <p>공부 B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당연치 않아 한다고 생각한다. •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어 몰입도가 높아진다. •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다. <p>공부 AB형</p>
---	--	---	---

Bring focus
집중을 가져오다

자유로운 당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
계획을 세우는 일에 서툴러 무작정 공부하는 편입니다. 또한, 좋아하는 과목에는 집중력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은 집중력이 떨어져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평한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긴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할 분위기를 정해두고 정해진 시간에 끝내도록 짧은 계획을 세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방법 - 이동 집중 학습법
공부 B형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30분 정도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에 몰두하고 그 뒤에 다른 과목을 학습하는 것이 기분 좋은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몰입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자신만의 공부장소가 없고 계획을 세우는 데 서툴기에 이동 집중 학습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학교 쉬는 시간에는 카페에서 공부할 수 있는 등 공부 장소와 장소를 바꿔가며 공부하는 것이 긴 시간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게 도와줄 것입니다.

<B형> B형은 책상에 꾸준히~오래 앉아있기 보다는 그때그때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편이고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래도 O형과 비슷한 ‘외향적인 성격이다보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곳에서 오래 공부하는 걸 힘들어하는 B형에게 맞는 학습법은 바로 ‘이동 집중 학습법’ 등하고 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잠깐잠깐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나의 공부 혈액형은 무엇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스스로 계속 고민하는 편이다. • 시끄러운 장소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공부하는 것을 선호한다. • 매일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천하는 편이다. <p>공부 A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풀이를 하면서 개념을 익히는 편이다. •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편이다. • 어려운 과목은 쉽게 포기하는 편이다. <p>공부 O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 •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판단하여 학습하는 편이다. • 좋아하는 과목 위주의 학습을 선호한다. <p>공부 B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당연치 않아 한다고 생각한다. •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어 몰입도가 높아진다. •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다. <p>공부 AB형</p>
---	--	---	---

ABsolute learning
완벽한 학습

논리적인 당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
분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논리적인 성격 때문에 자신에게 그 공부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느끼어 바로 공부하는 공부 AB형은 이 학습을 통해 나에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획을 세울 때 주변사람들과 자기의 학습 목표공부를 할 자리는 나의 학습 목표를 공유하도록 하여 공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든다면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습 방법 - 반복학습
공부 AB형은 자신의 학습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이지 수시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그날 공부한 것을 바로 점검하는 편입니다. 또,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 학습의 기원이라 할 반복이나 암기를 소홀히 하기 쉬워 이 부분을 보충해 주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취약한 과목의 개념을 반복적으로 집중 공략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만들며 질문과 답변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에 있어 좀 더 탄탄한 개념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B형> 마지막 AB형은 공부에 있어 완벽주의자라고 할 수 있데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딱 맞아 더더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사실~~~ 이런 AB형에게 추천하는 학습법은 반복학습으로 자신의 학습량 및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후회 계획을 세워 행동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해요! 특히 취약한 과목의 개념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아요:-)

고2/1 학생들이
고3까지 꼭 가져가야 할 공부 습관 다섯 가지

-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라!**
중위권이나 하위권들은 대부분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노력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 성과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성적향상에도 좋지 않으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규칙적인 공부를 해라!**
벼락치기나 밤샘공부는 머리에 남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부는 항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방법이 더욱 효과적으로 머릿속에 기억됩니다.
- 요력을 익혀라!**
무작정 공부를 하다 보면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을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익혀 학습하는 것이 성취에 도움이 됩니다.
- 스트레스는 확실하게 풀어라!**
스트레스가 쌓이면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의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취미생활이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만의 철칙을 가져라!**
공부를 하는 시간만큼은 나만의 철칙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공부하면 그만큼 능률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10대 자녀와 다름없이 대화하는 방법

10대 자녀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게 되면 다름을 즐길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상황인데요. 자녀와 현명하게 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10대 자녀와 현명하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자녀가 다 컸다고 생각하여 성인과 사고방식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10대는 여전히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이고 사고가 덜 성숙했음을 이해해야 해요. 10대는 사고가 덜 성숙해 부모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자녀와의 대화에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0대 자녀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며 공감해주세요. 그런 후 그 생각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과정에서 자녀가 생각을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의 결론이 당장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

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화 자체를 통해서도 자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자녀의 생각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은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기 주관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부모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녀의 생각이 부모와 다르다고 해서 따지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자녀가 편하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도 성장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틀림이 아닌 다름의 의견이라면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주세요. 자녀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주관을 형성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끈질기게 요구할 때 결국 들어주는 습관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요구하면 부모가 지쳐서 양보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줄 수 있는 부분과 들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단호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불필요한 말다툼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조율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 대해 가족회의를 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열린 대화로 풀어나가려 함을 보여 주세요.



3월은 모든 것을 파악하는 달! 3월

나를 알고, 대학을 알고,
갈 길을 알자!

3월 9일 학력평가
각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경향 파악

✓ check ①
지난해 대학별고사의 기출문제,
출제의도, 교육과정 연계 범위/수준 체크!

✓ check ②
긴~ 호흡으로
11월까지 달릴 준비 스타트!



세 마리 토끼를 잡자! 4월

내신과 수능,
논술을 동시에 준비하자!

4월 12일 학력평가
4월 중순~ 중간고사
대학별 모의논술고사 실시 (~5월까지)

✓ check ①
고3 1학기 내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 check ②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은 모의논술 신청
대학별 맞춤식 준비를 시작하자고요~



치밀한 준비만이 살 길! 5월

내가 갈 대학을 내 손 안에 놓자!

대학 주최 입시 설명회 스타트!
5월 2일 모든 대학 수시모집요강 발표

✓ check ①
지원대학/학과 수시모집요강 확인!

✓ check ②
모집인원 변동, 모집단위
통폐합 여부 확인!



진검승부는
6월부터!



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특수대학도 살펴보자!

6월 1일 모의평가 (N수생이 함께해요. 디디)
특수대학(경찰대/사관학교) 원서접수

- ✓ check ①
성적이 떨어져도 좌절하지 말고
keep going~!
- ✓ check ②
잊기 쉬운 특수대학 원서접수도
놓치지 마세요!



일단 기말고사에
집주옹~!



방학동안
수시원서, 자소서 준비 하기!

7월 12일 학력평가
7월 중순~ 기말고사
7월 27일~30일 대교협 수시박람회

- ✓ check ①
마지막 내신 확실히 잡고,
수시를 준비하자!
- ✓ check ②
수시박람회에서 직접 상담 받고,
수시 전략을 짚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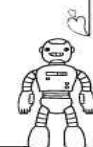
짧지만 중요한
방학기간!



수시원서, 자소서에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자!

8월 26일~ 수능 원서 접수
수시 지원 대학 결정, 자소서 작성

- ✓ check ①
수능을 잊지 말고, 집중력을 유지하자!
- ✓ check ②
수능 원서 접수 시에
수학/탐구/제2외국어 선택은
신중하게!



수시접수는
전략적으로!



이제는 **정시, 최저충족**을 노려라!

9월 1일 정시모집요강 발표
9월 6일 모의평가
수시 원서접수
이공계특성화대학 원서접수
(KAIST, GIST, DGIST UNIST, 포스텍)

- ✓ check ①
9월 모평에서 내 위치 확인!
- ✓ check ②
내신과 수능을 종합해서
나에게 유리한 수시 전형을
선택하자!



대학별고사와
수능을 둘 다
잡아야 할 때!



수시 1차에 붙었다고
마음놓지 말자!

10월 17일 학력평가
대학별 고사 실시 (~11월까지)
수시 1차 합격자 발표

- ✓ check ①
대학별고사는
수능 집중력을 흐리게 한다!
- ✓ check ②
절대 페이스를 잃지 말자!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



내 모든 **집중력**을 바로 그 날,
대수능에!

11월 16일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 실시

- ✓ check ①
수능 최저를 가늠해보자!
- ✓ check ②
수능 후에도 가열차게!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등)를
준비하자!



고3을 위한 내신 성적 관리 가이드

□고3 내신 성적, “3학년 때까지 성적 관리 놓지 말아야



학교 성적을 의미하는 ‘내신’은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였는가를 평가하는 데에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즉, 내신은 학생의 학업 참여도와 학업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생의 대학수학능력을 검증할 때 학생부교과 성적을 주요 지표로 보고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수시모집에서 교과 성적의 영향력은 높을 수밖에 없다. 또 대학에 따라, 반영비율은 낮지만 정시에서도 학생부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내신 성적이 부족하다고 느껴 수능에만 올인할 경우, 수시 6번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그만큼 좁아지게 된다. 따라서 정시를 바라보고 대입을 준비한다고 해도 내신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내신은 수능의 출발점

많은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을 이원화하여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내신의 1차적 목적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을 묻거나 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개념 이해 문제 위주로 출제된다. 수능 또한 교과서 밖이 아니라 교과서 안에서 나오는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출제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내신과 수능에서 측정하는 내용의 핵심은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개념 및 원리이므로 내신은 수능과 연동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내신 성적에 대한 관리가 철저할수록 확실한 개념 정립을 통해 수능에서 또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내신 영향력 크다

적지 않은 수험생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에서만 내신

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입시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생기는 오해이다. 다수의 학생들이 1, 2학년 때의 내신 성적 결과가 좋지 않으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후의 내신 관리를 포기하는 흐름을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내신 성적은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까지를 아우르는 평가요소이다. 물론 영향력 자체는 전형별로 다양할 수 있겠지만, 내신은 학생부교과, 논술 등 모든 전형에서 평가요소로 작용된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또한 내신 성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들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전형의 특성상 학생들을 평가하는 지표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학업역량’과 ‘학업 성취도’를 기본으로 설정해 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내신’이다. 학생의 내신 성적을 통해 얼마나 성실한 학업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얼마나 가능성을 보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생물과 화학 과목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면 그 학생의 학업역량과 성장 가능성은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낮거나 혹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 결국 내신 성적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희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술전형에서도 여전히 견고한 내신의 영향력

논술전형의 정원은 정부 정책에 의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중·상위권의 대학에서는 의미 있는 선발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 대학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논술 100%로 평가하여 선발하기보다는 일괄전형이나 단계별전형 안에서 학생부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이때 반영되는 내신 성적의 차이는 희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논술고사의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변별력을 보정하기 위한 장치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내신 성적의 영향력은 크게 작용하게 된다.

내신은 전형 요소뿐만 아니라 논술 문항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최근 논술시험의 출제 경향은 교과 개념을 묻고 그 교과 개념과 관련된 시사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거나 비판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논술전형에서도 측정하는 내용의 핵심은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제시문과 개념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공부란 하나의 맥락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신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학년 1학기 내신은 학생부교과 성적의 꽃

1, 2학년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은 고3 내신관리에 신경을 쓸지 말지를 고민한다. 승산이 없는 수시보다는 정시를 목표로 수능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전형요소인 수능이나 논술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자칫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시와 정시에서는 하나의 전형 안에서도 다양한 전형요소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포기하는 것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원하는 대학과는 점차 멀어지게 될 수 있다.

특히, 3학년 내신은 수시에서 학생부 성적 반영 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학별로 학생부 교과 성적의 반영 방법과 그 비중은 다 다르지만, 3학년 1학기의 성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반영된다. 예를 들어 2018학년도 전형계획안에 명시된 학생부 반영방법을 살펴보면,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연세대/고려대 등은 학년별 반영비율이 20:40:40이고, 한양대, 중앙대 등은 학년별 동일 비율로 반영한다. 재학생들의 경우 3학년 내신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3학년 1학기는 1학년, 2학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학생부교과전형 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논술전형에서도 학생부교과전형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비슷한 교과 성적일 경우 학년이 오르면서 향상되는 학업성취도를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 성적은 이전 학기 성적보다 더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학년별로 20:40:40의 가중치를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 3학년 1학기 내신은 모든 전형에서 다른 학년 내신에 비해 2배 이상의 중요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업역량이 수시 선발에 차지하는 비중과 그 가치를 염두에 두고, 남아있는 3학년 내신 시험을 잘 준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학년 내신 학습은 수능 학습까지 이어져

3학년의 마지막 내신은 ‘학습의 균형성 확보’와 ‘학습 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내신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수능에 집중하기 위해 수능 학습만 진행한다고 해도, 실제로 내신 시험 기간에 수능 학습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둘 다 놓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학습 시간을 균형적으로 배분하여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능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수능과 3학년 내신은 주로 교과서와 EBS 교재를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내신을 충실히 대비하는 것이 곧 수능 대비를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능을 위해서 일정 정도 내신 대비를 해

야 하는 것이다. 특히, 단위 수가 높은 과목에서 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부교과 성적은 주로 국·수·영·사/과 교과를 위주로 반영하지만, 학교 및 전형에 따라 전 교과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 희망 대학의 교과 반영 범위를 확인한 뒤 대비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내신을 준비하면서 지필평가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2~3주를 앞두고는 출제 예상 단원에 대한 학습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권 수험생에게 추천하는 3학년 내신 대비법

상위권이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역시 ‘개념 학습’이다. 상위권 학생들 중에는 간혹 문제풀이에 집중하여 개념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신 시험은 결국 교과서 속의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70% 이상 나오며, 이외의 유형도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이를 적용하는 등의 응용문제가므로 개념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내신 시험 기간 전, 수업 시간에 알려주시는 여러 정보들과 수업 시간에 나눠주셨던 부교재 자료들을 점검하면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과 이해가 덜 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해 두어야 한다. 자료 정리를 통해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을지를 예상해보고 미리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개념을 복습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충했다면, 이제는 실전 적응 훈련이다. 재학 중인 고교 및 주변 고교들의 내신 기출문제들을 습득하여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때 주의할 점은 기출문제만을 너무 믿고 추가적 학습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출문제들에는 개념의 핵심이 분명히 들어있지만, 매해마다 시험 범위가 다르고 문항을 출제하는 선생님 또한 다르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 및 출제 경향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나서는 틀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한번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때까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추가 복습을 하는 것이 좋다.

□중·하위권 수험생에게 추천하는 3학년 내신 대비법

대부분의 학생이 시험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정확한 학습 정도를 모른 채 무리한 목표를 세워 학습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위권 위치의 학생들이 그런 이유에 해당한다. 무리한 목표를 세울 경우, 성적에 맞지 않는 학습으로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신의 학습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는 방법은 기출문제를 통해 본인의 개념 숙지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다. 자신의 학습 정도를 알았다면 그에 맞는 실천 가능한 학습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는 시험 범위 안의 고난도 문제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고난도 문제는 점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기본 개념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도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과 변형 문제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뒤에 고난도 문제까지 정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 전 과목의 모든 단원에 걸쳐 복습하기보다는 과목별로 부족한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간혹 개념을 이해하기보다 암기로 공부를 끝내려는 학생들이 있다. 하위권 학생의 경우 단순 암기만으로도 성적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위권 학생이 상위권으로 가기에는 단순 암기법은 한계가 있다. 물론 암기는 문제를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암기식 공부법은 시험에서 응용문제가 출제되었을 경우 적용이 어려워 당황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을 먼저 이해한 후 문제풀이 스킬을 익힐 것을 추천한다.

동아 서정원 기자

고3을 위한 논술 대비 가이드

□고3 논술 대비, 교과서 활용해 평소에 대비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 지원을 고민하는 수험생이라면 자신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신이 논술전형에 도전해도 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이미 논술전형 지원을 결심했다면 어떻게 논술전형에 대비해야 할까?

□논술 전형,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유리할까?

논술에 아무리 자신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 등급이 2~3등급이 나오는 학생이라면 내신의 불리함을 판단하기 보다는 논술에서 고득점

할 수 있는 대학, 논술 고사가 나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4~5등급 이하라면 상위권 대학 논술 전형은 다소 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내신 비중은 줄고 논술의 난이도는 높아지며,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논술 전형을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논술실력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검토해 봐야 한다.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과 과학의 기본 개념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논술전형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학/과탐 논술의 경우 보통 수학, 과탐 영역에서 1~2등급의 학생들이 많이 준비한다. 점수가 높아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1~2등급 정도 받는 학생이라면 현 상황에서 개념 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준비를 해도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의고사에서 4~5등급 대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 우선은 수능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6, 9월 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최대한 높여 수시/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논술전형을 고3때부터 생각하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명심해야 할 사항은 논술 대비로 인해 수능 공부에 대한 집중력 하락 등 수능 공부에 지장을 주어진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능 전 시험이 있는 학교의 지원은 신중하게 하고, 수능 이후 시험을 치르는 학교의 경우 부담 없이 지원해두고 지원 사실을 잊고 수능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

□교과서를 활용해 평상 시 대비

자신의 논지를 세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글을 읽고 토론을 하거나 짧게 글을 써보는 것이 좋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내세우고, 근거를 제시하는 연습, 타인의 말이나 글 속에서 요점을 찾아내는 연습, 타인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는 연습 등이 필요하다. 평소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각종 학습활동 과제 등을 통해 평소에 논술적 사고력을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답안에 옮겨 적기 보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표현으로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호응, 분량 등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과서의 학습활동 과제는 이러한 연습을 위한 최적의 활용 수단”이라고 조언했다.

□이과→문과, 문과→이과 ‘교차지원’ 가능

대학별로 계열에 맞게 지원해야하는 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학생이 지원하고 싶은 학과에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학/학과에서 출제하는 논술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그러나 논술전형에서의 교차 지원은 단순히 생각할 것은 아니다. 우선 각 대학에서 제시하는 최저학력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계열별 또는 학과별로 제시하는 최저학력기준 영역과 조건이 다르므로, 이 점을 확인하고 수능 영역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계열별 논술 출제 유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인문계열의 경우는 인문논술을 실시하며, 자연계열은 수리(+과학) 논술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고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논술전형의 교차 지원을 위해 수능 응시 영역을 바꾸고, 학습적 부담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학교 진도에 맞춰 수능형 문제풀이 진행

자연 계열의 경우 논술대비 시 교과서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교과서로 학습을 할 때에는 해당 단원의 개념과 원리에 접근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가능하고 올바른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진행해야 한다. 수리 논술의 경우 결론 도출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문제를 풀면서 풀이과정을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된다.

과학 논술의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심층적인 내용을 알아두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하면 좋다. 또한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학 과목과 논술에서 선택하는 과학 과목을 일치시켜 수능을 준비하면서 논술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평상시에 서술형으로 답안을 정리해보면서 교과 진도에 맞춰 수능형 문제까지 충실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 서정원 기자

고3을 위한 비교과 활용 가이드

□고3 비교과, 학생부와 연결해 자기주도적으로



최근 몇 년간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은 전체대학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두드러지는 강세를 보이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요소 중 서류, 그 안에서도 학생 평가의 기본 근거자료가 되는 ‘학교생활기록

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꿈꾸고 체계적인 학생부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관리 영역에는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 전반이 포함된다.

학생의 능력 중 수치화되지 않는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근거와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명시적으로 표현된 내용인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영역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펴본다. 이 말은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실적이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스펙을 쌓고 많은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입시만을 목적으로 어떠한 방향성 없이 단순한 경험만 많이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꿈을 추구하는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비교과 영역까지 활동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비교과 활동은 어떤 계기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활동했고, 그러한 활동이 본인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중요한 평가의 준거가 된다.

지금부터 바람직한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본인의 목표와 희망 대학 평가 기준에 맞춰 방향 설정

학생부종합전형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알맞은 잠재력과 소질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학생부에 기입될 활동 내용들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구난방으로 여러 활동을 하기보다는 분명한 목표를 중심으로 활동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교육학과로 진학하고자 하는 목표가 세워졌다면 독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등에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지원하려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된 계획과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그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려고 일관되게 노력해 온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게 마련이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중요하게 평가하거나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대학의 평가 기준은 모집요강에서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거나 ‘지원 자격’ 혹은 ‘인재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재상은 학교 전체 및 전형별, 학부/과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대학의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책자 등을 미리 찾아보는 것이 좋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은 대개 △학업의지 및 전공 적합성 △창의성 △인성 △학업성취도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등의 5가지 평가기준을 근거로 학생을 선발한다”면서 “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종합 평가로 최종 등급이 평가되고 지원자의 합격과 불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명칭 그대로 종합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따

라서 출결이나 봉사활동, 임원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 등 학교생활기록부 여러 요소들을 위의 평가기준을 고려하며 성실히 관리해 두어야 한다.

□양보다 질이 높은 자기주도적 활동 해야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교내 활동들을 하는 것이 좋은 학생부 관리라고 착각 한다. 물론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자기주도적인 활동들이 아니라면 활동의 개수만 채우려는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좋은 비교과 활동이란 단순히 활동들의 개수를 늘려 학생부 내용을 많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활동들을 연결하여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다른 활동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자. 그리고 본인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른 활동을 계획하고 연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비교과 활동은 학생부에 기록 돼야 의미 있어

학교생활기록부는 중요하지만, 사실 학교생활기록부의 대부분은 학생이 직접 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만들기란 사실 막막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점은 학교생활기록부 내의 기록이 평가의 출발점인 것은 맞지만, 평가의 핵심은 그 기록의 내면에 존재하는 가치라는 점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 기록보다는 그 내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 학생부를 어떻게 작성할지 고민하기보다는 학생부 내용의 원천이 되는 활동들을 계획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학생부의 근거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활동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활동이나 생각에 대해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해당 교과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좋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 스스로가 어떻게 학교 활동을 이어나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개수와 시간, 양이 많은 학생부를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사고와 가치관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우수성을 질적으로 높이는 학생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활동 후에는 활동 내용 정리하는 습관 필요

일반적으로 고1 시기는 학교생활을 탐색하는 기간이라면, 2학년은 본격적인 준비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되도록 일관성 있는 활동들로 2학년 때부터 비교과 활동을 채워 넣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진로 설정이 늦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는

등의 이유로 비교과 활동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음을 먼저 고려하자.

대학이 알고 싶은 사항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생이 고교 생활 동안 ‘어떤 경험을 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경험으로 인해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이다. 결코 양이 많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며, 그런 활동들이 나에게 얼마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수기 등을 통해 전년도 합격자들의 활동 내용을 확인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활동의 방향성, 대학의 평가 기준 등만을 참고하도록 하자. 그리고 남은 3학년 1학기 동안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꾸준히 축적해나가는 것이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나 활동 후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 놓는 습관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기록 및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담임선생님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보여드릴 수도 있으며,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대비에도 매우 큰 효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학년 1학기 ‘비교과 관리 전략’ 6가지

매력적인 학생부를 만드는 6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1학기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6가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부족한 비교과 활동을 보완한다면, 입학사정관이 다시 한 번 눈여겨볼 만큼의 매력적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① 평소 학구적인 태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견지하자!
학교생활기록부의 50% 이상은 학습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진다. 학습 관련 내용에는 단순히 성적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수업 태도나 학습 습관, 과목에 대한 열성 등도 기록된다. 즉,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시간에 좋은 자세를 보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② 자신의 특색을 살리자!
무조건 열심히,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꿈이 의사라면, 수학/과학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생명과학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학 관련 서적을 많이 읽는 등 의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최대한 특색을 살려야 한다.

③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학교생활을 하자!
학교는 하나의 조직이다. 조직 생활에서 존중과 배려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대학들은 인성이 좋은 인재를 선발하려고 하며,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활동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자. 이때의 활동은 단순히 임원 활동/봉사 활동 등의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역할 안에서 실제적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④ 전공적합성을 살리자!

대학에서는 전공적합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따라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교과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한 활동 과정이 학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⑤ 일관된 방향성이 있는 것이 좋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경시대회 등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 일관된 방향성이 있으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고,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⑥ 기말고사 후에 비교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자!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기 중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독서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부족했던 비교과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이때의 활동은 학교 단체 참가 활동보다는 개별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단체 참가 활동의 경우, 참여 동기가 약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경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활동 이후에는 본인의 경험 내용 및 소감 등을 잘 정리하여 담임선생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도 이 시기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리하기 때문에 이때 활동내역을 선생님께 전달하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동아 서정원 기자

대입 준비를 위한 R&E대회 스펙 관리법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4월에는 과학토론, 항공우주, 기계과학, 융합과학, 학생과학발명품대회, 5월 자연관찰탐구, 과학탐구실험대회, 6월 통계활용대회 등과 같이 수목이 자라듯 봄 여름 끊임없이 대회가 이어진다.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기에 효율적인 대회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대회 선택을 위해 학생들이 고려해야 할 점 들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 대회 선택은 무조건 학생의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회는 '기폭제'다. 학생에게 해당 학문을 배우고 싶고 탐구하고 싶은 동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첫 대회를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과학의 달이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할 팀을 찾고 있으며 다양한 대회가 진행되기에 선택의 범위도 넓다.

대회를 몇 번 참가해 보았다면 이제는 학생에게 맞는 대회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선택해보고 앞으로의 비교과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이때, 대회 전형을 확인하고 요강에서 '결과물의 종류가 산출물인지 토론 및 발표 형태인지', '개인 참가 대회인지 단체인지', '주제가 미리 정해져 있는지 자유주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대회마다 요강이 다양한데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학생 통계 활용 대회'의 경우 통계를 활용한 산출물을 제출하며(2차 단계 진출의 경우 발표를 진행), 팀으로 참가하고(1

인 참가가 가능하나 국제대회 참석 불가로 1인 참가 경우 적음), 주제가 통계를 활용한다면 자유롭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요강에서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있다면 최상단 또는 최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주최기관이다. 교육지원청,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관련 기관에서 주최, 주관한 대회나 행사는 교내대회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학교장의 동의를 받고 참가하면 대회 참가 여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꼼꼼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해선 균형 있는 대회 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참가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떠한 포부를 갖게 하였는지의 과정에 집중해야 결과나 점수보다 서술이 중요시 평가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트렌드를 맞출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학교 제출용으로, 장기적으로는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전에 당시의 상황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대회 보고서를 스스로 써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결과물', '인원', '주제'와 같은 대회 전형의 3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산출물은 영재성 입증자료 등의 포트폴리오로 사용 가능하고 개인 참가 대회이며 자유주제의 경우 학생 맞춤형으로 내용을 선택할 수 있기에 본인의 진로·진학 목표를 보여주기에 좋은 글감이 된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의 경우, 발명대회에 참가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발명품을 제작한다면 꿈과 잘 어우러지는 이력이 될 것이다.

반대로 토론·발표형이며 단체로 참가하고 주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수상 또는 꿈과 연관시키기 보다는 자기주도학습 능력,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인성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다. 2017년 과학토론대회는 대회 전형 분류표 왼쪽 성향에서 오른쪽 성향으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토론·발표형이며 단체 2인 1개조로 진행되며 주제가 당일 제공되어 분석을 해야 한다. 즉, 이번 대회를 학생들이 효과적인 자신의 히스토리로 활용하려면 준비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하고, 함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좋은 해결 방법을 찾는 경험을 생생하게 겪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진로·진학 목표를 보여줄 수 있는 대회에는 꾸준

히 참가하여 연구 성과의 깊이를 키우고, 자기주도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여 열정과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균형 있는 대회 스펙이 왜 중요한지 의문이라면 당장 다음달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는 고3의 마음으로 아래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살펴보자.

진로진학 목표	
전공지식, 성장과정, 성과 등	<p>- 대교협 공통 자기소개서 양식</p> <p><공통문항></p> <p>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p> <p>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1,500자 이내).</p> <p>3.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p>

자기주도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인성 학습열정 등	<p><자유문항></p> <p>* 지원 동기 등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별로 1개의 자유 문항을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글자 수는 1,000자 또는 1,500자 이내로 하고 대학에서 선택).</p>

위에서 소개된 대회 전형 분류표를 활용하여 자기소개서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다. 1번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는 진로·진학을 목표로 했던 대회 경험들을 적을 수 있으며 3번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실천 사례를 적는 부분에는 자기주도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대회의 상황들을 적을 수 있다. 그리고 2번에는 두 가지 성격의 대회 중 강조할 만한 사항들을 적으면 된다. 물론 자기소개서 내용 모두를 대회 참가 스토리로 넣으라는 것은 아니다. 적을 내용이 많지 않다면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중요한 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서활동, 진로·진학활동, 교과에 집중한 경험 등을 적절히 섞어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면 된다.

이 글의 서두에서 말했듯이 대회는 기폭제다. 다양한 입학 서류에는 대회를 참가하지 않고도 연구성과를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때문에 수상보다는 꾸준히 도전하고 스스로 연구해보고 탐구해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마음껏 자신 있게 도전하자. 다음 칼럼에서는 대회 및 연구 사항 기재 방법, 실제 서류에서 R&E 대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생의 활동에 주목하라!

서울대 교육학과 합격생, “모든 교과를 교육학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

《2018학년도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부분의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요구한다. 세 가지 제출 서류 가운데 학생이 재량껏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소개서 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다.

명문대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에듀동아는 서울대를 목표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서울대 합격생들의 활동내역을 분석하는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생의 활동에 주목하라’ 시리즈를 연재한다. 해당 시리즈는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해 17학번이 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원문을 일부 소개하는 방식으로 다뤄진다.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 원문을 통해 합격생들은 고교 3년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리즈에 연재되는 사례는 모두 최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펴낸 입시 서적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REAL 사례(SKY 17학번 편)’에 담겼다.》

자율형공립고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합격해 현재 17학번으로 재학 중인 A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 씨는 교육학과 전공적합성을 어필하기 위해 고교 3년간 배우는 모든 교과를 교육학과 접목했다. 화학시간에 조별활동을 하면서 친구와의 갈등을 경험했던 일을 바탕으로 교육자의 태도에 대해 고민해보는 한편 윤리와 사상 시간에는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해보기도 한 것. A 씨의 자기소개서 원문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Q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제게 공부란 ‘세상을 보는 창을 넓히는 것’입니다. 저만의 언어로, 다양한 지식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때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었고, 질문은 언제나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수학과 철학의 공통점을 수학시간에 질문한 적이 있었지만 진도의 압박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윤리와 사상 시간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언명을 접했습니다. 철학은 본질을 캐는 질문을 통해, 수학은 명확한 증명을 통해 ‘내가 안다고 자신하는 것’에 대해 성찰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학이란 공식과 계산으로만 점철된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제 편협한 시각이 넓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하략)

Q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 진정한 배움이란 무엇인지 느끼면서, 교육의 역할과 기능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은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품게 만들었고, 저는 교내활동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윤리와 사상 시간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추진력을 두루 갖춘 아이히만이 홀로코스트를 죄의식 없이 행한 사실을 배우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오직 ‘임무에 충실했던’ 아이히만과 다르바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다른 친구들을 보며, 아이히만처럼 주입된 이데올로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삶에 대한 경각

심을 느꼈습니다.(하락)

Q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 고등학교 2학년 화학 시간의 조별 활동에서 조장을 맡았었습니다. 저 이외 세 명의 예체능 전공 지원의 조원들은 화학 점수는 진로에 불필요하다며 저에게 피해만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공부가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이 그들에게서 '배움을 즐길' 기회조차 앗아버린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회의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계면활성제인 '로릴황산나트륨'을 주제로 정했지만, 대부분은 자료조사 같은 소극적인 역할을 원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번 기회에 무언가를 배우면 좋겠다는 말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제 관심을 못마땅하게 여겨 거부의 의사를 보였지만, 제가 화학 관련 영상을 잠깐 보면서 회의를 시작하자자는 의견을 제안하자, 조원들은 점차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하락)

Q4. 고등학교 재학기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A4. (1)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마사 누스바움

교육적 관심이 커지면서 접하게 된 이 책은, 저의 고교기간 모든 교육적 탐구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Not for profit' 즉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책의 원제목은 저에게 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조용한 위기'에 큰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참된 교육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의 '위기지학'을 도와주고, 도덕성 비판력 공감능력을 키워내는 민주시민교육이 추구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하락)

(2) 멋진신세계-올더스헉슬리

오늘날 사회에 가장 필요한 교육에 대해 고민하게 해준 책입니다. 쾌락과 소비를 지향하고 행복을 만끽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멋진 신세계'는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면식교육과 '소마'로 철저하게 통제되고 조작된다는 점에서 루쉰이 말한 강철 감옥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면학습원리는 단순지식 전달의 실패에서 도덕 주입의 성공까지 그려졌는데, 시대를 앞서가는 작가의 교육적 통찰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하락)

(3) 의산문답-홍대용

실학 사상을 연구하면서 읽게 되었는데, 저자 홍대용에게 따끔한 호통을 들은 듯한 경험을 저에게 안겨준 책입니다. 여태까지 제자백가 사상에 감탄하면서 그로 인한 깨달음

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는데, 제 모습이 '실용'에게 줄곧 꾸지람을 당한 '허자'와 진배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유학의 허황됨을 비판하는 '실용'의 논리 정연함에 기존의 가치관이 붕괴되는 '허자'를 보고, 무언가를 새롭게 배운다는 것은 충격적이며, 종래의 사고가 완전히 '깨짐'으로써 지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하락)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생, "기숙사 별점제도 연구했다"

《2018학년도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부분의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요구한다. 세 가지 제출 서류 가운데 학생이 재량껏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소개서 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다.

명문대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에듀동아는 서울대를 목표로 학생부종합전형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서울대 합격생들의 활동내역을 분석하는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생의 활동에 주목하라' 시리즈를 연재한다. 해당 시리즈는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해 17학번이 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원문을 일부 소개하는 방식으로 다뤄진다.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 원문을 통해 합격생들은 고교 3년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리즈에 연재되는 사례는 모두 최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펴낸 입시 서적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REAL 사례(SKY 17학번 편)'에 담겼다.》

국제고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해 현재 17학번으로 재학 중인 A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 씨는 재학 중인 학교의 기숙사 별점제도에 대한 연구를 자기소개서에 전면으로 내세웠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개인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한 것을 자기소개서에 드러내면서 학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어필하고자 한 것. A 씨의 자기소개서 원문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Q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배운 지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학업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타인의 호실에 출입하는 '방간이동'은 별점 대상이었고, 빈번한 방간이동을 막기 위해 별점이 3점에서 5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계속 방간이동을 했고, 별점 상승이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기대효용이론으로 방간이동의 동기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했고, 현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점 변화 시기 전후의 4학기 별점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별로 최저 수준의 방간이동 횟수가 별점과 관계없이 존재함을 찾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기숙사 선생님께 빈 방의 자유 개방 및 시설 구비를 통해 방간이동의 최저 수준을 낮춰야 함을 건의 드렸습니다. 기숙사에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고,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해당 연구로 ACG 미래연구자상도 수상했습니다. (후략)

Q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 첫째, 경제, 경영 과목에 대한 흥미를 6년 동안 개인 블로그에 담으며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공부의 흔적을 남기고자 블로그를 시작했고,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관심 있는 국제 기사를 스크랩해 시기별로 요약 정리한 글, 현대 경제학 원론과 맨큐의 경제학을 독학하며 알게 된 개념들을 정리한 글 등을 올렸습니다. (중략)

둘째, 한국사업대회에서 가족농과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게임 '그린라이트' 사업계획을 구성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게임 이용자가 가상으로 키운 농작물을 가족농가가 실제로 공급하는 메커니즘으로, 대형 쌀 생산 및 수입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가족농가를 친환경 농작물과 게임이라는 매개로 소비자와 연결시켜 이들에게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중략)

셋째, 3년 동안의 꾸준한 토론 동아리 활동으로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1학년 때는 토론하면서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지 못해 타당한 반론을 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빈 용지에 주장과 근거를 나누어 쓸 수 있는 저만의 형식을 만들어 매주 토론할 때 활용하였고, 상대방 발화의 요지를 정확히 잡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후략)

Q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 멘토링 봉사활동으로 배려는 관심에서부터 시작함을 깨달았습니다. MOVE 봉사동아리에서 매주 설악 교회를 방문해 한글이 능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과 수학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성별이 달라 어색했고, 멘티가 말수가 적어 수학을 설명해 주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학생의 공부하는 방식을 살펴본 결과, 문제해설을 오랫동안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대표 유형의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그 방식으로 풀이하는 이유를 해설보다 쉽고 자세하게 줄글로 풀어 써 주는 노트를 준비해 갔고, 해당 노트를 통해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 기간에 학생의 단원평가 성적이 오르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보다도, 진실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먼저 관심을 갖고 찾아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후략)

Q4. 고등학교 재학기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A4. (1) 매니지먼트 - 피터드러커 / 청림출판.
저자가 조직 구조는 조직 전체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영감을 얻어 전체 최적과 부분 최적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공장에서의 총생산 극대화를 전체 최적으로, 각 생산 공정 단계 개선을 부분 최적으로 두고, 생산을 진행할 때 가장 느린 생산 공정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가우스 함수와 미니멈 함수를 이용해 일반화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비용 하에서 가장 느린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 것이 다른 모든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 방법보다 효율적으로 총생산 증가시킴을 발견했습니다. (후략)

(2) 창조적 자본주의 - 최혁준 / 디프넷.

경제를 공부하며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빈부격차 심화 현상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이 책을 읽었습니다. '사회적 인정'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후략)

(3) 논어 - 공자.

"제자가 들어와서는 효도하며, 나아가서는 공경하며, 삼가고 미덥게 널리 하여 사람들을 사랑하되 인자한 이와 가까이 하니, 이를 행하고도 남는 힘이 있으면 글을 배울 것이다."

저는 제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방 청소,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은 전혀 돕지 않고, 가족들이 제가 학업 스트레스로 투정 부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논어 학이편 6장을 읽고 이런 태도가 매우 경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부했던 공자조차도 효도와 공경, 그리고 사랑이 어떤 공부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학생이기 전에 한 부모의 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인간임을 자각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후략)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합격생, "어려운 양자물리 책, 친구들과 '독서토론' 하며 읽어"

《2018학년도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부분의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요구한다. 세 가지 제출 서류 가운데 학생이 재량껏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소개서 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다.

명문대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에듀동아는 서울대를 목표로 학생부종합전형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서울대 합격생들의 활동내역을 분석하는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생의 활동에 주목하라' 시리즈를 연재한다. 해당 시리즈는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해 17학번이 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원문을 일부 소개하는 방식으로 다뤄진다.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 원문을 통해 합격생들은 고교 3년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리즈에 연재되는 사례는 모두 최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펴낸 입시 서적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REAL 사례(SKY 17학번 편)'에 담겼다.》

일반고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 합격해 현재 17학번으로 재학 중인 A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 씨는 고교 3년 동안 물리와 관련된 지식을 늘리는데 애썼다. 특히 어려운 양자물리 책을 읽기 위해 친구들과 팀을 꾸려 '독서 토론' 하며 읽기 까지 한 점은 A 씨의 학업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는 대목. A 씨의 자기소개서 원문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Q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저학년 때부터 논리를 배우고 응용하는 수학에 매력을 느껴 진로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학을 배울수록 수학과 일상생활의 관련성에 대해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괴리감을 극복하고자 수리 경제에 관심을 가져보았지만, 곧 진정으로 원하는 진로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을 설명하는 물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 '엔트로피'라는 책을 주제로 하는 독서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토론에서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공계 친구들은 작가의 엔트로피를 근거로 한 세계관을 비판하고, 특히 책에서 언급된 볼츠만의 확률적 사고방식이 옳은지 갑론을박을 펼쳤습니다.(하락)

Q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자고 결심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주제로 한 사회경시대회나 영어노래대회 등 흥미가 생기는 교내대회들에 참가하고, 반대항 족구대회, 단체 줄넘기의 대표로 출전하고, 여러 대학교의 전공체험, 서울대학교 융합 기술 연구원 캠프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지속적으로 노력한 활동은 교육봉사입니다. 1학년 때 시작하여 2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수학 교과 위주로 교육봉사를 하며 어려운 형편의 중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한 봉사였는데, 곧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스펙을 위해 봉사를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멘토링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보며 봉사의 의미에 대해 고민했습니다.(하락)

Q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 2학년 때, 수리경제학자의 진로를 생각하였지만 경제학과 거리가 있는 이공계 학생인 탓에 경제학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동아리 'E2'에 가입하여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던 중, 회장의 아이디어로 E2가 전교생 대상의 경제골든벨을 주최하였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역할 분배 토의를 거쳐 본선진출자를 뽑는 OX문제의 출제를 맡아 예상문제를 선별하고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회의에서 회장 친구가 완벽히 공부한 학생이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며 출제한 OX 문제가 어렵다는 견해를 말했고, 대다수의 친구들이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다수의 의견에 따라 문제의 난도를 하향 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회 당일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OX문제의 정답을 아는 학생들을 따라다녀 탈락자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12번 문제까지 진행하였을 때 200명이 넘게 남자, 동아리 회원들을 모았습니다. 솔직히 제 견해와

반대로 문제의 난도를 낮춘 결과에 짜증도 났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긴급회의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했습니다.(하락)

Q4. 고등학교 재학기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A4. (1) 아웃라이어

성공의 비밀이 담겨있다는 말을 듣고 고른 이 책은 성공하는 사람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갱신했습니다. 저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렸던 행운과 그들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 및 세대 등을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빌 게이츠는 컴퓨터 산업이 발전하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캐나다 하키 선수들은 빠른 생일로 인한 유년의 작은 차이가 상여 아웃라이어가 되었다고 합니다.(하락)

(2) 그 무렵 누군가

평소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를 좋아하여 즐겨 읽었고, 신작 '그 무렵 누군가' 라는 소설이 출간된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 같이 구매하여 읽었습니다. 책 속에 생물학 연구소의 연구원이 자신의 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 인공수정 기술을 이용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록 소설 속에서 인공수정 기술을 범죄자를 밝혀내는데 사용하지만 범죄자 몰래 그의 아기를 탄생시킨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사생활을 공격하는 일입니다.(하락)

(3) 쿼텀스토리

양자 물리를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여 선생님께 부탁드려 추천을 받아 '쿼텀스토리'를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이 책은 21세기의 양자물리까지 다루고 있지만 능력과 시간의 한계로 보어의 코펜하겐 해석부분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를 느끼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을 얻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양자역학의 시작인 흑체복사부터 슈뢰딩거 방정식과 그 해석까지를 배우며 플랑크, 아인슈타인 등 위대한 과학자들이 양자물리라는 거대한 탐을 쌓아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하락)

서울대 인문계열 합격생, “공소시효 관련 소논문 작성하며 진정성 어필”

《2018학년도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부분의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요구한다. 세 가지 제출 서류 가운데 학생이 재량껏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소개서 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다.

명문대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에듀동아는 서울대를 목표로 학생부종합전형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서울대 합격생들의 활동내역을 분석하는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생의 활동에 주목하라’ 시리즈를 연재한다. 해당 시리즈는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해 17학번이 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원문을 일부 소개하는 방식으로 다뤄진다.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 원문을 통해 합격생들은 고교 3년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리즈에 연재되는 사례는 모두 최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펴낸 입시 서적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REAL 사례(SKY 17학번 편)’에 담겼다.》

일반고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 합격해 현재 17학번으로 재학 중인 A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 씨는 고교 3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사회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학술연구반을 만들어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당시 이슈가 된 ‘태완이 사건’을 발표하고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법률 사이트와 형사소송법 책을 찾아 읽은 뒤 소논문을 작성하며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A 씨의 자기소개서 원문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Q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전략) 서로 다른 전공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학술연구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당시 큰 이슈가 되었던 ‘태완이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공소시효로 인해 범인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꼭 필요한지 개선방안은 없는지 연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법률 사이트를 뒤져보고 도서관에서 형사소송법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았더니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제한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지으며 소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생소한 법률용어의 뜻을 일일이 알아보아야 했고 학업과 병행해야 하는 시간적 한계도 있어 많은 양의 연구를 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관심분야를 연구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미래에 할 일이 있는 공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Q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 여러 분야의 사회이슈를 알아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고자 Englissue(학술연구반)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의 문화산업 흡수, 기업의 피터팬신드롬, 국정교과서, 통일에 대한 인식, 공소시효 등 돌아가며 다양한 주제를 소개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토론할

때 언어의 논리로만 주장하는 저와 달리 친구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교과학습에만 얽매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 각자의 지식을 모아 해결책을 내는 과정에서는 융합적 지식과 사고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에 대한 관심과 비판적인 시각을 길렀을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 영어교육, 경영, 문화콘텐츠 등의 다양한 학문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법학, 철학 등 여러 인문학을 융합하여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학문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하락)

Q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 1년 반 동안의 아이돌 봉사가 끝난 후, 저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봉사를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의미 있는 봉사를 찾던 중 다문화 가정 어린이 책 읽어주기 봉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는 희수라는 3살 여자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낯가림 없이 저에게 달려와 안긴 희수는 밝은 성격의 아이였는데 이상하게 말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려 했지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장난감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첫 봉사 후 찾아보니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의 경우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 언어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느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봉사부터는 책을 읽어주는 대신에 예쁜 그림이 그려진 낱말 카드를 준비해갔습니다. 낱말의 그림을 보여주며 단어를 소리 내어 읽어주었고 한국어에 조금 더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희수가 그림카드를 보며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단어를 말했는데,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하락)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합격생, “동아리 활동, 진로와 연관 있을 땐 메모”

《2018학년도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부분의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요구한다. 세 가지 제출 서류 가운데 학생이 재량껏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소개서 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다.

명문대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에듀동아는 서울대를 목표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서울대 합격생들의 활동내역을 분석하는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생의 활동에 주목하라’ 시리즈를 연재한다. 해당 시리즈는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해 17학번이 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원문을 일부 소개하는 방식으로 다뤄진다.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 원문을 통해 합격생들은 고교 3년간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리즈에 연재되는 사례는 모두 최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펴낸 입시 서적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REAL 사례(SKY 17학번 편)'에 담겼다.》

국제고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해 현재 17학번으로 재학 중인 A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 씨는 진로를 정해나가며 관련 수행평가와 발표수업에서 자유전공 진학이라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주제를 잡았다. 동아리 활동 내용이 진로와 관련이 있을 때는 반드시 메모를 해 나중에 쓸 수 있게 했다. 다양한 활동 내용을 통해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준 것. A 씨의 자기소개서 원문 중 주요 부분을 발췌해 소개한다.

Q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 5년 동안 소외계층 반찬 배달 봉사를 다니면서 빈곤계층이 경제적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선진국 핀란드의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세계는 평평하지 않다'와 '세대전쟁'을 읽으면서 핀란드 사민당의 경제제도를 공부하고 보고서를 적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빈곤문제의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 해결책은 TED의 'Hans Rosling: New Insights on Poverty'라는 강의에서 찾았습니다. (중략) 배운 내용으로 '빈곤이란? 센지수를 바탕으로'라는 발표에서 단편적인 빈곤층 조사와 지원 때문에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빅 데이터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적, 계층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맞춤형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서 사회복지학과 통계학을 간학문적으로 연구해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재화를 지원하는 효율적 시스템을 만들어 빈곤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Q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 (전략) 자율동아리 활동 Paper Brain. 종이 뇌라는 이름은 뇌처럼 좌뇌와 우뇌를 적절하게 이용해 이성과 감성을 모두 사용하자는 목표가 담겼습니다. 동아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문학을 통해 빈곤을 체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각자의 전문분야를 정해 조사 내용을 선정하는 부분이 빈곤과 관련된 구체적 탐구를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학년 때의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 3학년 때의 아동노동 문제는 토의를 통해 성급히 설정한 생각을 고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동노동 문제에서는 단순히 반대 입

장을 지지했지만 토의를 통해 생계유지와 가족부양 문제를 이해한 후 좀 더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장학금지급을 통한 아동노동 해결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는 75퍼센트의 지지율로 가장 좋은 의견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과정으로 저의 단점으로 뽑혔던 "원칙적"이라는 의견은 "자신의 주장을 유연하게 지킴"이라는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Q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A3. 재능을 뜻하는 'Gift'라는 말은 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선물과는 달리 재능은 나눠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부해집니다. 재능 나눔의 매력을 처음 느낀 경험은 동아리 병원봉사 연주회였습니다. 초반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연습시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 몇몇 부원은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문제가 커보여도 원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 못한 것임을 알아내고 갈등이 있는 부원끼리 대화를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서서히 부원들의 마음도 바뀌어 동기들과는 더욱 친해지고, 후배들은 저에게 아베크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연주를 하면서 주사를 맞을 때 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나눔이 주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요청으로 '포켓몬 메들리'를 연주했을 때 받았던 박수와 웃음은 그때까지의 수고를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병원봉사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재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4. 고등학교 재학기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A4. (1) 빈곤의 연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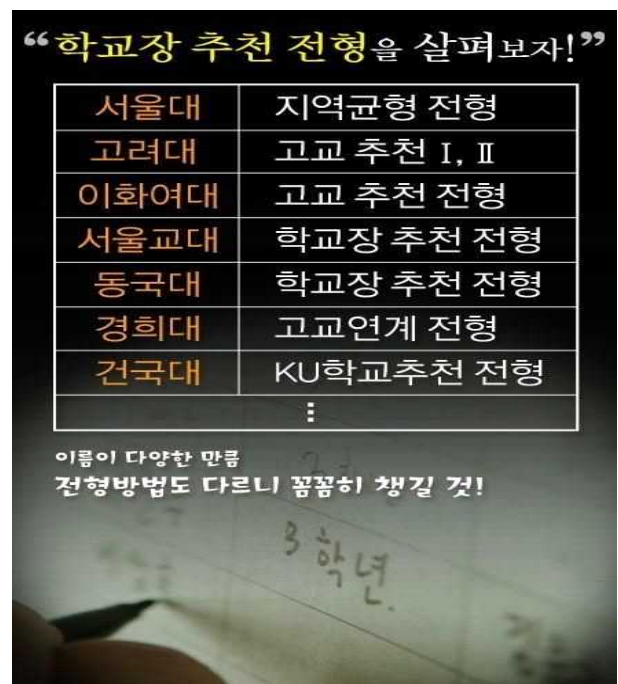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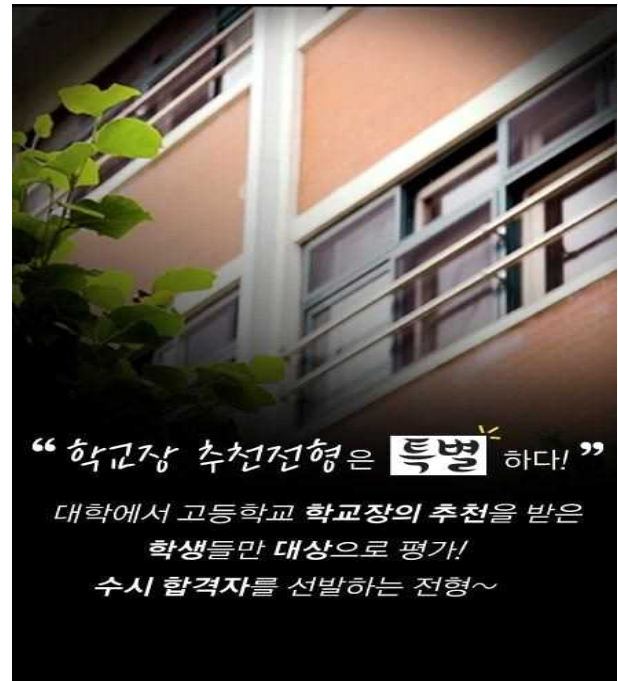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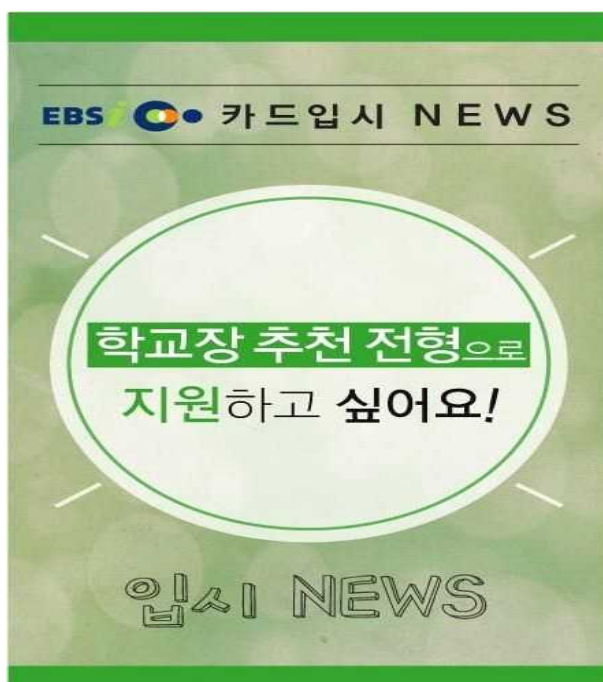
프리드먼의 '세계는 평평하다'는 아웃소싱을 긍정적이라 표현했습니다. 원가를 내리고 개발도상국의 인재들에게 일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빈곤의 연대기'의 서평에 아웃소싱이 기계화의 첫 희생양이라는 내용을 보고 직접 읽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빈곤의 원인을 통시적으로 다룬 이 책은 빈곤에 대한 특이한 시각들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특히 르완다와 소말리아의 빈곤이 IMF의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라는 시각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얻고자 한국의 IMF 사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경제적 문화가 민영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대량해고와 대부분 연관돼있다는 점에 주목해 빈곤계층을 위해 단순 노무직의 기계화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제의 '빵과 밥과 기계'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책은 빈곤의 원인을 알아 실질적 해결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경제학과 정치학을 통합해 빈곤문제를 접근해나가는 새로운 과정을 배우게 된 계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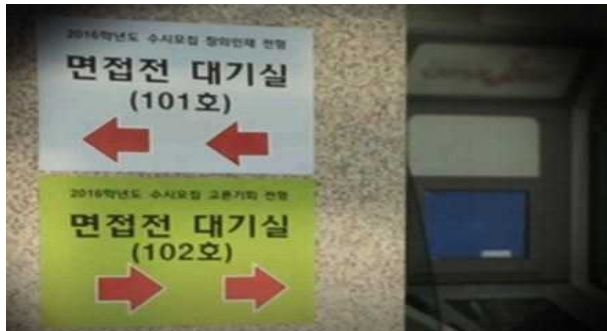
(2) 코스모스

(전략) '코스모스'는 학문적으로는 저에게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해주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자가 어려운 과학적 내용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었다는 내용이 더 놀라웠습니다. 평소에 어렵게 적어야지 더 좋고 난해하게 적을수록 더 학문적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저자가 '코스모스'에서 적은 방식은 미래에 빈곤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전문가에게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읽고 토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3) 전복과 반전의 순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류'의 표본은 바뀌고 음악도 이 흐름의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유행하고 있는 힙합은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사회와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은 유교적 배경과 자본주의가 주류인 국가인데 힙합의 저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1장에 나온 락앤롤의 등장과 미국 주류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에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1950년대의 미국의 청소년은 부모세대의 물질적 세태를 락앤롤로 비판했듯이 한국의 청소년들은 주류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음악이라는 출구로 해소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아마르티아센이 주장한 능력의 빈곤과 연관해 사회를 변화할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빈곤의 음악, 힙합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주류사회에게 표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빈곤에 대해 접근할 때 사회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분석해 담겨있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형 방법별로 깔끔하게 정리!”

전형방법	대학
서류100	동국대
서류50+면접50	서울대
교과50+서류50/교과40+서류60	경희대/건국대
1단계: 교과100	고려대
2단계: 면접100	
1단계: 교과100	이화여대
2단계: 1단계 성적80+면접20	
1단계: 논술100	시립대
2단계: 논술60+학생부40	



학교장 추천 전형
“가장~ 많이하는 질문 TOP3”

한 학생이 동시에 여러 대학에 추천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추천 규정에 따라
 한 학생이 한 대학에만 추천되거나
 2~3개 대학에 추천이 될 수 있어요~
 (자세한 문의는 담임쌤에게 고고~)



학교장 추천 전형
“가장~ 많이하는 질문 TOP1”

고교별로 추천 인원 제한이 있나요?

인원제한이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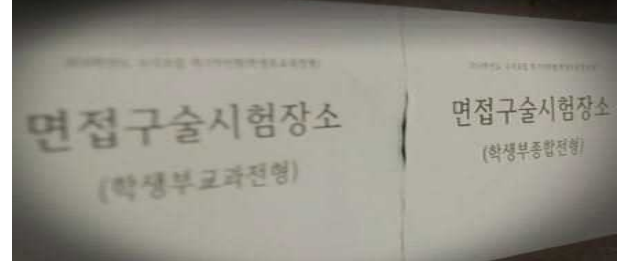
인원제한이 있는 대학
 : 서울대, 경희대, 이화여대, 동국대 등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
 : 건국대, 서울교대 등

학교장 추천 전형
“가장~ 많이하는 질문 TOP4”

학교장 추천은 학생부종합 전형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고대는 교과와 종합, 이대는 교과,
 서울시립대는 논술전형으로 실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종합전형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많아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가장~ 많이하는 질문 TOP2”

인원제한이 있는 대학의 추천인원은 몇 명인가요?

- 디지스트, 가톨릭대: 고교별 1명
- 육사, 해사, 카이스트, 지스트, 서울대: 고교별 2명
- 고려대: 고3 재적 학생 수 4%
- 경희대: 고교별 인문 2명/ 자연 3명/ 예체능 1명
- 동국대: 계열별 2명
- 이화여대: 고교별 6명

5월~7월 입학 설명회 일정

날짜	시간	대학
5월 4일	오후 1시	육군 장교 및 부사관 진출에 관한 설명회
5월 11일	오후 6시 30분	한동대
5월 20일	오후 4시 10분	가천대 - 모의 전성...



학교장 추천 전형
“가장~ 많이하는 질문 TOP5”

학교장 추천에는 반드시 추천서가 필요한가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포함되어 있는
 학생부 중심 전형 (교과, 종합)에서는
 대부분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실제 추천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